



즉시 배포용: 2018년 6월 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 전역에서 앞으로 5년간 암 예방 및 조기 감지 프로그램 지원에
4,380만 달러 이상 지원 발표**

*저소득 및 위험한 환경에 처한 뉴욕 주민이 무료 검진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뉴욕주 암 서비스 프로그램(Cancer Services Program, CSP) 시행에 3,930만 달러
이상 수여*

*지역사회에서 예방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강화하는 암 예방 조치 (Cancer
Prevention in Action, CPIA) 프로그램 시행에 450만 달러 수여*

두 프로그램용 기금 수여 단체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앞으로 5년간 주 전역에서 암 예방 및 조기 감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4,380만 달러 이상이 수여될 예정임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을 받는 프로그램은 뉴욕주 암 서비스 프로그램(Cancer Services Program)에 참여하며 유방암, 자궁암, 직장암 발생 정도의 격차를 해소하고 무보험, 저소득 인구를 위한 무료 검진을 통해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건강한 활동을 강화하고 암 발생 위험을 줄이는 임무를 맡을 암 예방 활동 (Cancer Prevention in Action) 프로그램 참여 프로그램들도 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은 소득 수준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위협합니다. 뉴욕은 목숨을 구할 조기 감지 및 예방 서비스 혜택을 모든 남성과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지원함과 동시에 암 예방 활동 리더로서 뉴욕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두를 위해 의식을 높이고 고급 검진의 접근성을 개선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지 및 치료에서 큰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암 퇴치 운동은 매일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에 초점을 맞춘 공동의 노력과 함께 뉴욕은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암 예방 활동에 투자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시민들이 계속해서 건강 관리 격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신 라운드 기금으로 그 격차를 해소하도록 돕고 뉴욕 주민들이 암을 조기 감지하여 위험을 줄이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암 서비스 프로그램(Cancer Services Program)을 통한 격차 해소

2018년 10월 1일에 시작하여 주 전역에서 5년간 뉴욕주 암 서비스 프로그램(Cancer Services Program)을 시행하기 위하여 22개 병원, 지역사회 기반 단체, 개별 서비스 지역의 카운티 건강 부서에 총 3,937만 5,000달러가 수여될 예정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유방암, 자궁암, 직장암 발생 정도의 격차를 줄이고 무보험 및 연방 빈곤 수준 또는 그 이하에 해당되는 시민들에게 무료 검진을 제공하여 사망자 수를 낮추도록 도울 것입니다. 암 서비스 프로그램(CSP)은 주 전역에서 조직화된 암 검진 시스템을 지원하며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이 암 검진 및 진단 서비스를 받고 필요한 경우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수여를 받는 단체는 주로 지역 내 건강 관리 제공자와 연결되어 암 서비스(CSP)에 적합한 고객에게 유방암, 자궁암, 직장암 고급 검진 및 진단 후속 조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암 예방 조치 (Cancer Prevention in Action) 프로그램을 통해 위험한 환경에 있는 인구의 암 예방 및 의식 개선

5년간 뉴욕주 암 예방 조치(CPiA)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네 개의 조직에 45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이 수여되어, 교육 및 자원을 제공하고 주요 암 예방 분야를 다루는 시스템 변화 전략을 개선하는 데 지역사회 옹호자들을 고용할 것입니다. 이는 검진을 위한 유급 휴가, 청소년 및 기타 위험한 환경에 있는 집단의 피부암 발생 위험 축소,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백신 장려를 포함합니다.

암 서비스 프로그램(Cancer Services Program) 및 암 예방 조치 (Cancer Prevention in Action) 프로그램 수여 단체 목록은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고령자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피부암 중 치명적 유형인 흑색종은 뉴욕주의 20-34세 젊은 성인 사이에서 네 번째로 흔하게 나타납니다. 흑색종 중 90%는 태양에서 받는 자외선, 실내 태닝 같은 인공 장비가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든 암 진단은 매년 한 사업체에 1,500달러 이상 생산성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추산됩니다. 병가 또는 휴가로 청구되지 않는 암 검진용 유급 휴가는 직원들이 나이에 적절한 검진을 받도록 장려합니다.

매년 약 2,500명의 뉴욕 거주민들은 자궁암, 인두암을 비롯하여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관련 암을 진단받습니다. 이러한 암 중 많은 종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며 11세, 12세의 소년, 소녀부터 26세 여성, 21세 남성까지 권장됩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 계속해서 위험한 환경에 처한 이들이 암 검진 및 예방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확보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금 수여로 주 전역에서 뉴욕 주민의 건강을 진정으로 개선할 프로그램들이 지원받을 것입니다.”

상원 건강위원회(Senate Health Committee)의 **Kemp Hannon**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 검진 접근성을 높이면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주 전역에서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과거 활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올해 예산으로 건강 관리에 투자하고 보험 상태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조기 검진 및 암 서비스를 확장하게 되어 기쁩니다.”

하원 건강위원회(Assembly Health Committee)의 **Richard N. Gottfried**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기 감지는 생명을 살립니다. 비용 때문에 건강 관리가 어려워지면 안 됩니다. 뉴욕의 암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뉴욕 주민의 소득에 상관없이 공공 건강 교육, 검진, 진단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암 검진 및 예방(Cancer Screening and Prevention)에 관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지원하는 암 커뮤니티 프로그램(Cancer Community Programs)에 관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